

번호 03-6

제 목	국문	지역사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 실태 조사			
	영문	A study on status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(OHS) for small scale(under 50) enterprises in a community.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하은희, 김정연, 성유미*, 정운재*, 위자형.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, 이화여대 의학과 1학년*, 2학년*			
	영문	Eun-Hee Ha, Jeong-Youn Kim, Yu-Mie Sung, Yun-Jae Jung, Cha-Hyung Wi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Ewha Womans University.			
분 야	보건관리 ()	발 표 자	일반회원 (○)	발표 형식	구 연 (○)
	역 학 ()		전 공 의 ()		포스터 ()
진행 상황	연구완료(), 연구중(○) → 완료 예정 시기 : 1999년 11월				
<p>1. 연구 목적: 국가 IMF 경제위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농촌지역으로 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, 지역사회 주민들 중 산업노동인구를 증가시켜, 이에 따라 기존 공공보건기관의 보건사업에서 새로운 노동인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, 지역사회(일개 면단위) 내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실태와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.</p> <p>2. 연구 내용 및 방법: 조사대상은 1999년 6월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소재하는 전체 사업장으로서 시청등록업체(1999.4.30), 통계청조사업체(1999.5.31)에 실제 연구진이 발견한 신규업체를 추가한 95개 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최종분석 대상은 면접조사 및 사업장 방문자체를 거부한 13개 사업장을 제외한 82개 사업장으로 하였다. 1999년 6월부터 8월까지 산업의학 교수 및 전공의, 연구학생 2명과 조사기간중 지역사회의 학 실습중인 의학과 4학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가지고 면접 조사하였으며, 조사내용은 대상사업장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실태, 산업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인식도, 보건지소 이용 및 교육참가의사에 관한 내용이었다.</p> <p>3. 연구 결과: 1) 전체 82개 사업장의 총근로자수는 552명이었고, 평균 근로자수는 6.7명으로 매우 적었으며, 5인 이하 사업장이 82개 사업체중 48개 (58.5%)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. 이중 등록 사업장은 18개(22.0%)에 불과하였고, 45개 사업장(61%)이 하청업체였으며,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. 사업장 업종 현황은 목제품, 가구제조업이 27개(32.9%)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, 금속제품제조 11개(13.4%), 식료품제조 9개(11.0%)의 순이었다. 지난 30년동안 설립된 사업장 중 1997년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31개(37.8%)를 차지하여, 최근 이 지역에 사업장이 급격히 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거주지를 알 수 있었던 근로자 499명중 224명(44.9%)가 수동거주 근로자로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이었다. 대부분의 근로자 456명(91.2%)이 생산직에서 근무하였으며, 사업주와 근로자 구분 없이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. 사무직 근로자는 44명(8.8%)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에 종사하였다. 총 평균 업무시간은 하루 11.2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고 있었고,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른 업무시간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 휴식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1시간 정도가 대부분이었다. 가족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업무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였고 유해한 물질의 노출시간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7개(8.5%)였으며, 대부분 2교대를 하고 있었다.</p>					

2)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사업장내에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은 2개 사업장뿐이었으며, 나머지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체계가 전무하였다. 보건관리대행 및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도 이들 2개 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 국고지원을 받고 있었다. 그러나 사업장에서 전문인력에 의한 보건 교육이 실시된 적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.

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곳은 13개 사업장으로 15.9%에 그쳤다.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고 있는 목재, 가구제조업에서는 면취기, 전기톱, 루타기, 전동사포 등 위험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, 기계에 방호조치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은 27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뿐이었다. 가장 지급율이 높은 보호구는 소음에 대한 귀마개로 나타났다. 분진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율이 저조하며,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도 면마스크로서 방진마스크를 보유하고 있거나 착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 군대도 없었다.

구급함 비치에 대해 조사된 69개 사업장 중 32개(46.4%) 사업장에서 구급함을 비치하고 있으며, 내용물은 일반 가정 수준인 소독약과 구급밴드 정도였으며 빈통만 가지고 있고 내용물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. 담당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, 근로자들이 구급함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. 응급시 이용지정병원이 있는 곳은 사업장 한 군대 뿐이었다.

3) 자신의 작업장에 건강에 나쁜 유해물질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응답자의 68.4%였다. 또한 작업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같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57.9%에 이르렀다. 그러나 구체적으로 유해인자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것에 노출된 경우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. 사용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응답한 근로자중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50.0%였으며 실제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다.

전체 근로자중 88.9%가 현재 건강관리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지난 6개월 동안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 중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한명도 없었다. 그 이유는 경제적, 시간적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움 등이었다.

4) 보건지소를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근로자는 11.1%에 불과하였으며,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건지소의 위치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. 보건지소에서 보건교육을 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37.5%였다. 이는 근무 중 보건지소 방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, 보건지소인력이 사업장을 방문하면 고려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.

4. 고찰:

최근 농촌지역에 소규모 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,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정부의 행정적 힘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미등록 영세 소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 이들은 가내공업 형태를 띤 하청업체가 대부분이고 사업주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며,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관계는 다소 협력적인 편이었다.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보건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었으며, 이 지역에서 가장 큰 2개 사업장에서만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. 본 조사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근로자들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소규모 사업장은 영세성으로 인하여 사업주 부담의 관리사업 보다는 공공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. 현행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은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5인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시킬 때 비로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 또한 그 사업의 시행기관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국한시키기 보다,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공공보건기관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. 향후 이러한 사업모형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지역사회에 조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문제파악이 선행된 후 구체적인 사업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